



하늘사랑 4

2018. April

www.kma.go.kr Vol. 442

특집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정책 클로즈업

기상레이더 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날씨 + 스토리


봄의 불청객 황사,
올바른 대처법 알기!




기상청

‘교육지원 한눈에’에서 내게 꼭 맞는 교육지원 혜택 한번에 찾아보세요!

- 

약 60여 개의 교육복지·지원
정책이 **한곳에**
- 

나만의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를 **한눈에**
- 

신청시기 및 정책내용 변경
알림도 **한번에**



교육지원 한눈에



<http://eduone.moe.go.kr>

하늘사랑

2018 April Vol. 442

2018년 4월호(통권 442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8년 4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남재철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윤기환 최의수 조희애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햇살과 바람의 기억, 날씨를 보다 · 02
- 정책 클로즈업
기상레이더 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 04
기상청 '도로 날씨정보' 서비스 시작! · 06
- 포커스
한국기상전문인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 08

KMA About

- 열린마당
빈자리 많이 그리워해주세요 · 10
봄바람 타고 오빠가 달린다 · 12
조금 늦은 첫걸음 · 14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설렘 가득한 기상청 · 16
여행에 미치다 #알림세부 · 18

KMA 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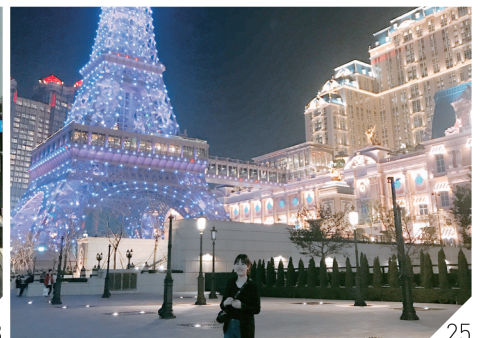
- 날씨 + Story 봄의 불청객 황사,
올바른 대처법 알기! · 20
- 날씨 + Book 『행복의 기원』 · 22
- 날씨 + Travel 엄마랑 나랑 산전수전 마카오 깨기! · 24
- 날씨 + 연애 봄의 걸음걸이 · 26

KMA Report

- 포토 브리핑 · 28
- 독자 마당 · 30
- 포토 에세이 · 32



April



2

13

25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햇살과 바람의 기억, 날씨를 보다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3월 23일)을 맞이하여, 기상·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는 '햇살과 바람의 기억, 날씨를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2,908점의 작품 중 최종 44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입상 작품은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 그랜드홀 로비(3월 20일~25일), 서울 SRT 수서역사 중앙로비(4월 2일~13일)에 전시되었다.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의 대표 수상작을 소개한다.



대상 겨울 바다

경기 화성과 안산시 경계에는 한 바다에 머리를 맞대고 사용하는 항구가 있다. 깊은 바다가 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올 겨울 한파엔 이 깊은 항구도 얼어붙었다.



금상 무지개를 즐기다

독섬역 근처의 비 개인 오후, 물 고인 곳에 비친 반영을 이용하여 무지개를 담고 있는 순간,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은상 가뭄이 만든 신비로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보령호가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물 마른자리가 분홍색을 띠며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더 많은 작품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에서 만날 수 있다.



동상 동아줄 구름

해 질 녘, 외줄타기 공연을 펼치는 하늘 위로 마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동아줄 같은 구름과 채운이 만들어진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동상 너를 삼키고 말 거야

너울성 파도는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 너울성 파도의 거친 모습을 촬영하였다.

기상레이더 정보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기상레이더 시스템 개선으로 위험기상 예측 빨라진다

레이더기획팀

기상레이더센터는 노후화된 기상레이더를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최첨단 이중편파 레이더로 교체하여 관측망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8년 3월, 첨단 관측망을 활용해 기존 10분이 소요되던 관측주기를 5분 간격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처리절차 또한, 최초 관측부터 영상 서비스까지 15분이 소요되던 시간을 3분 이내로 대폭 개선하였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 전략 개선을 통해 고도 1km 이하 저층 관측 영역을 2.5배까지 확대할 것이며, 강수량 추정값의 정확도를 2018년에는 78%, 2020년에는 선진국의 수준인 84%까지 향상할 계획이다.



기상레이더 관측망 첨단화로 관측시간 단축!

기상레이더의 관측주기를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하드웨어 성능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했지만, 노후화된 레이더 관측망의 성능 한계와 과부하로 인한 장비 수명의 단축, 자료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해 관측주기 단축은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4년부터 이중편파레이더 관측망이 점차 확대되어 절반 이상 교체가 완료된 '17년, 드디어 기상레이더 관측주기를 5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상레이더 관측부터 영상 표출까지 5분 간격으로 3분 이내 제공

기상레이더 관측 영상은 관측, 자료의 수집, 품질 관리와 지점별 영상 합성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제공된다. 기존에는 레이더 안테나를 회전시켜 원시 자료를 생성하는데 6분, 후처리 과정에 9분이 소요되어 최초 관측부터 대국민 홈페이지의 영상 표출까지 최소 15분이 걸렸다. 특히 후처리 과정 작업은 11개의 층별(고도각별) 관측 자료를 마지막 관측까지 종료되는 6분 이후에서야 수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장비 성능 향상과 자료처리 기술 개선을 통해 층별 관측이 종료될 때마다 지면에 가까운 낮은 층의 관측 자료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자료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영상 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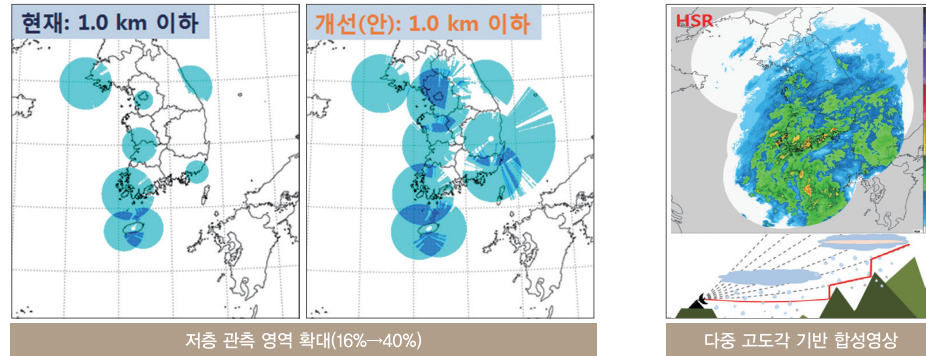
기상레이더 층별(고도각별) 관측

기상레이더 관측 영역 확대로 더욱 정확해지는 강수정보

강수 입자는 기온, 바람 등의 영향으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그 크기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면에 가까운 낮은 고도의 관측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레이더 기반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교체된 기상레이더는 지면에 가까운 낮은 고도를 조밀하게 관측하고, 상대적으로 강수 입자 분포가 희박한 상층의 관측횟수를 줄여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개선하였다.

* 레이더 기반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 지상 강수량(AWS 관측값) 대비 레이더 관측자료로 추정한 강수량의 정확도

기존에 주로 한 개 층의 자료를 사용했다면, 지형차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층의 다수 고도각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적용하는 다중 고도각 기술로 관측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관측변수를 최적화하여 고도 1km 이하 관측 영역을 기존 대비 2.5배 확대하였다. 여기에 무(無)강수예코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이중 편파 변수를 적용하여 강수량 추정값 정확도를 43%에서 75%까지 개선하였다.



기상레이더의 강수실황정보 제공 시간 단축, 왜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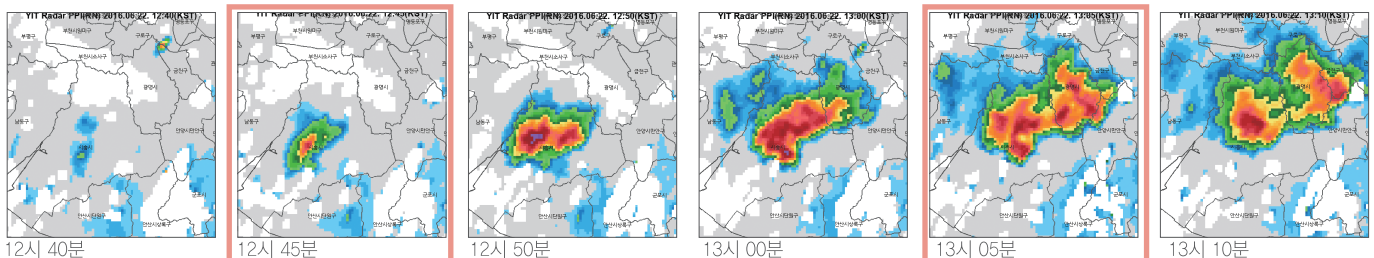
기상레이더는 10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지면 부근부터 대류권계면 부근까지 강수 현상을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기존의 관측장비 중의 하나인 '윈드프로파일러(연직바람관측장비)'도 10분 간격으로 기상 현상을 관측할 수 있지만, 관측범위가 설치된 지점의 연직방향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교체된 기상레이더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 강수 현상을 250m의 고해상도로 표현한 레이더 영상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강수 현상과 국지성 호우를 감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레이더 영상 분석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제공 시간 또한 단축되어 지금보다 최대 10분까지 앞당겨 위험을 미리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청주와 부산 지역의 호우처럼 미처 예측하지 못한 강한 강수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발달 초기 단계에서 발견한다면 위험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전파해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상레이더센터, 강수예측정보 서비스 개선에도 도전한다

기상레이더센터는 이번에 개선한 강수 실황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향상된 성능의 강수 예측정보를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눈, 비, 우박 등 강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첨단 관측망 구축과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강수 실황과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수에 민감한 생활, 산업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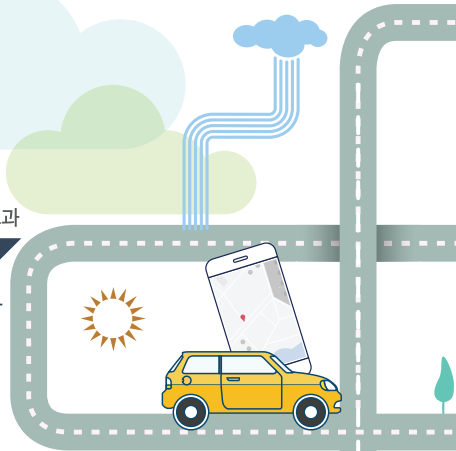
5분 단위 관측 영상 - 용인테스트베드레이더 관측 사례, 2016.6.22. 12:40~13:10



기상청 '도로 날씨정보' 서비스 시작!

기상융합서비스과

도로는 안개, 집중 호우, 도로 결빙 등 위험기상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기상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높이며, 특히 안개가 낀 날의 사망률은 맑은 날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기상청의 '도로 위험기상 정보'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국민들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치 있는 기상정보이다.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는 도로 위험기상 정보

도로 이용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위험기상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 감시용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한 '융합 기상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본 서비스를 영동고속도로에 우선 적용하여, 관람객의 교통 및 물자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CCTV 기반의 도로 날씨정보 서비스

기상청은 2018년 4월부터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산출한 날씨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하고 기상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기반 도로 위험기상 정보 Open API*'를 정식 서비스한다. '도로 위험기상 정보 Open API'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호출하여 스마트폰,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CCTV 기반의 도로 날씨정보 서비스

- Open API명 : 기상청 도로 날씨정보 'CCTV 기반 도로 날씨정보 서비스'
- 제공정보 : 영동고속도로 CCTV 지점(74개소)의 위험기상 정보(비, 눈, 안개, 양호)와 강도(강, 중, 약)
- 제공단위 : 표준노드링크별*, CCTV 지점별(74개소)
* 차량 운행 속도가 변화하는 구간(IC-IC, 교량·터널 시종 등)을 구분하여 표현한 전자 교통지도
- 제공구간 : 영동고속도로 강원권(여주IC ~ 강릉IC, 143km)
- 활용방법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CCTV 기반 도로날씨정보서비스' 검색
→ Open API 활용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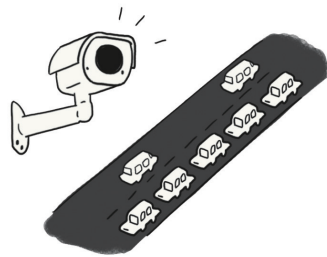
* Open API : 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도로 위험기상 정보 서비스의 검증과 확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영동고속도로 CCTV의 도로 위험기상정보 검증 결과, 안개 현상이 특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 정보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본 서비스는 중부 서해안 지역의 안개 다발 구간부터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상청의 '도로 날씨정보' 서비스는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지킴이 정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류 방법으로 날씨 현상 유무 판별, 배경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날씨 현상 강도 판별.



모바일



홈페이지



한국기상전문인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사무국장 박종식

하늘을 벗 삼아 동고동락하면서 한 평생 기상청에 몸담았던 기상인들은 1989년 12월 9일 뜻을 모아 한국기상동우회를 발족(초대 서상문 회장)하였다. 이후, 2002년 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기상전문인협회로 개편, 법인을 설립(기상청 허가 제1호)해 새롭게 출발하였다. 지금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경인, 대전·충청, 전북, 강원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지회를 두어 310여 명의 정회원과 수억 원의 자산을 갖춘 명실공히 기상전문인의 전당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협회를 방문한 남재철 기상청장과 환담을 나누는 회원들 (2018.3.28)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소개

협회 회원들은 30여 년 이상 기상학 이론을 연구하고, 기상업무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며 일생을 보낸 기상전문인들이다. 이들은 평생 터득한 기상전문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상기술의 조사 연구와 컨설팅, 기상 감정 및 자문, 기상기술의 교류와 자료의 수집 및 교환, 기상 관측과 예보의 보급 및 홍보, 기상장비의 상담 및 보급 등의 기상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기상전문인협회는 기상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통한 사회 복지 향상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를 목적으로, 모든 업무는 '회원 중심'의 소통과 화합이란 철학 아래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업무 실적 및 활동 내역

한국기상전문인협회는 1904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100년간 기상업무 발전사와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 기상 축전 콘텐츠를 개발해 왔으며, 한국 근대기상 100년사를 집필·편찬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강수 원인(저기압, 태풍, 지형성 등)을 분석한 최근 30년간의 한국 강수 원인 통계



총회에서 제9대 임원진을 소개하는 이현 신임회장(2018.3.14.)



국가기상위성센터 방문(2010. 5. 7)

조사를 시행했으며, 태풍 규모 분류와 강수량 바람에 의한 태풍특보 기준을 제시하고 태풍특보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까지 이어나갔다. 아울러, 중국 대륙의 지역별 기후특성 분석 및 기후평년값을 정리한 중국대륙의 기후특성 연구, 외국의 민간부문의 기상정보서비스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며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2017년의 경우, 회원들 중 약 10여 명의 기상전문 강사들이 서울 동작구, 송파구, 관악구, 마포구청에서 기상 및 지진재해 예방 차원의 민방위 및 직장 교육을 200여 회 이상 실시하였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상지식 강의, KOICA와 ODA사업의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 프로그램(기상자문관 활동)으로 수년간 세네갈,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기상협력 파견 활동을 통해 국위선양은 물론 기상분야 국제협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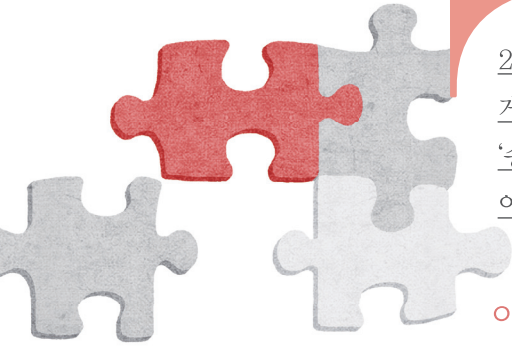
또한, 협회는 매월 주요 역사 현장을 찾아보는 문화탐방회, 산우회, 바둑 동호회, 봄·가을 산업시찰 등 활동을 통한 친목 도모를 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회적 공익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가입하여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는 등 양성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기상전문인협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지난 3월 14일에는 '2018년도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제9대 이현 회장이 새로 취임하였다. 이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취임 포부를 밝혔다. “첫째, 기상기후공동체로서 협회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수익 창출을 위한 업무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친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넷째, 회원 기부문화를 조성해 안락한 사랑방과 사무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기상전문인협회는 선·후배 회원들의 성원과 격려, 굳건한 신뢰를 믿고 새로 구성된 임원진, 그리고 기상청 후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상전문인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다. 앞으로 협회는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상·기후공동체의 기상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빈자리 많이 그리워주세요



2017년 10월 23일, 첫 출근의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나는 내가 하게 될 일은 무엇이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송지은’이라고 내 이름 세 글자가 쓰여 있던 명패와 책상, 그리고 사무실의 공기가 어찌나 어색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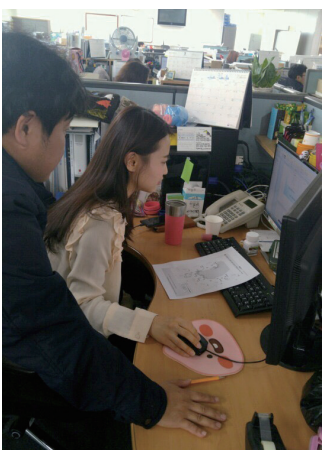
아찔했던 그 날

나는 해양기상과의 해양기상서비스팀에서 실무수습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처음 맡은 일은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지’에 활용할 바람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정해진 해역별로 ‘바람장미’를 그려 저장하면 되는 일이었다. 행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번이고 확인하던 게 생각난다. 이를 시작으로, 매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지를 편집하고 발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나에게도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 매우 기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기관의 자료에 오타를 내는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다. 나는 한참을 앓아있었다. 이를 알게 된 사무관님께서도 내가 한 실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분히 도와주셨지만, 한 동안 나는 눈앞이 아득하고 아찔했다. 그날 이후, 업무에 익숙해져 긴장이 느슨해질 때면 나는 그 날의 일을 교훈 삼아 떠올리며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송지은
해양기상과 실무수습



출장의 마법

사무실에서의 업무 외에도 항만공사, 선박안전관리공단, 해상관제센터 등 많은 출장 일정이 있었다. 해양기상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그간 자료로만 접했던 일을 출장을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니 내가 수행해온 업무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하루는 해양기상과 사무실을 벗어나, 기후과학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워크숍은 명동의 한 호텔에서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첫째 날 일정이 끝난 저녁, 나와 해양기상과 직원들은 회의를 나와 호텔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남대문 시장부터 명동성당까지, 주무관님들은 서울이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연말이라 그런지, 거리는 사람들과 예쁜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예쁜 배경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마치, 외국에 놀러 온 관광객처럼 한껏 신이 난 모습이었다. 사무실에서 보았던 진지한 분위기와 다르게 장난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 이분들을 어렵게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한층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 시간을 계기로, 나는 사무실에서도 간간히 주무관님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수습을 마치며…….

4월 말이면 6개월 동안 했던 실무수습이 끝난다. 이제는 내 자리도, 사무실의 공기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에 떨리고, 회식 자리에서의 건배사가 긴장되는 신입 사원이다. 6개월 동안의 실무수습은 앞으로 겪게 될 다사다난한 일의 일부일 것이다. 새로운 경험에 서툴렀던 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해양기상과 분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며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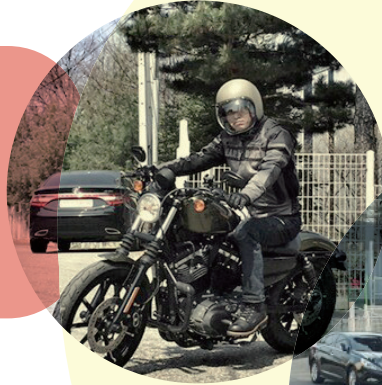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이 시간 동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것이다. 내 이름 '송.지.은' 세 글자가 공무원증에 새겨질 그 날을 기대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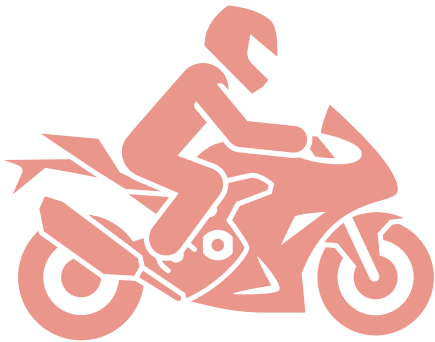


봄바람 타고 오빠가 달린다

어느 날 나를 뒤흔든 작은 바람에, 나의 일탈은 더 망설일 것 없이 시작되었다. 물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근심과 우려를 내비쳤지만 끝내 나를 막진 못했다. 바이크에 몸을 실은 나는 향기로운 바람의 환영을 받으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이 있다면 어디든 달리고 싶었다.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심해섭
국가기상위성센터

왜 바이크냐고?

10년 동안 나는 누구보다 성실한 기상청 공무원으로서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시설관리 및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매년 한 편씩 논문도 꼭 쓰며, 자기 계발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나만의 약속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덧 마흔을 넘기면서부터는 삶의 의미에 대해 줄곧 생각하게 되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나의 의지가 선택한 것은 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바이크 타기'였다. 나의 얘기를 들은 아내, 무엇 하나 큰 관심을 가져보거나 하고 싶은 것이 없었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고백에 충분히 공감하며 기꺼이 응원해주었다. 오히려 주변에서 깜짝 놀라며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선물을 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벌써 내 마음을 저만큼 앞질러 움직이고 있었다.



바이크타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달려라! 러블리 앨리~

바이크 동호회에 가입한 뒤 첫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그 두근거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타기 위해 면허를 준비했다. 그후, 주행 연습 때와 전혀 다른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동호회 무리가 이끌어주는 바이크의 신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라이더들에게 추위나 더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로 의지하며 온종일 500km를 달려 완주하게 됐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자신의 질주를 위해 평소 운동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호회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을 알게 되니, 라이딩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느껴졌다. 어느 백발의 노인 회원은 달릴 때만큼은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모습으로, 현실이나 나이에 타협하지 않고 바이크를 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바이크를 애인이나 가족만큼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쏟는 동호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땐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동안, 나는 공무원이나 누구의 남편도 아닌 그저 나 자체였다. 나의 바이크 '러블리 앨리'를 타고 달리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내가 되어 과감한 질주를 즐기게 된다. 물론 긴 주행으로 인해 허리와 전신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어디든 달리고 싶은 본능은 결국 나를 바이크로 이끈다. 한번은, 무더위에 가죽옷을 입고 몇 시간을 달린 것이 몸에 무리가 되어 꼼짝없이 앓은 적이 있었다. 당분간은 주행을 못 하겠구나 싶었는데, 며칠 뒤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몸은 이미 바이크에 올라타고 있었다.

바이크를 타고 길을 나서다

머리와 화장을 곱게 단장하고 옷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골라 외출하는 여자의 마음으로, 나는 바이크 복장과 장비를 챙겨 길을 나선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혼자 도로를 질주하는 내 모습은 내가 봐도 멋져 보인다. 허세와 가식이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 달리는 이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좋다. 그 옆에 작고 아담한 카페에서 차 한 잔과 한 구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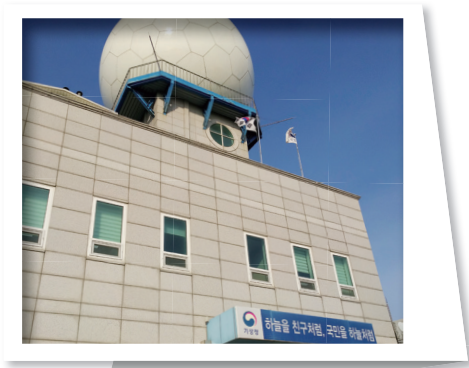


조금 늦은 첫걸음



지난해 여름, 나와 입사 동기들은 새로운 만남과 공직생활에 대한 설렘을 안고 신규자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미뤄둔 대학교 졸업 때문에 나의 기상청 생활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12월까지 학교에 다녀야 했고, 그사이 동기들은 수습 공무원으로서의 기상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만난 동기들은 첫 월급, 근무하는 부서, 업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지만, 아직 학교를 벗어나지 못했던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비록 내 몸은 학교에 있었지만, 과제를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기상청에 가 있었다. 그렇게 초조한 생활이 이어지던 중, 2017년 12월 18일, 드디어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에서 수습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기상레이더센터에서의 물품관리

처음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에 발령받아 물품 관리 업무를 배정받았을 때에는 어리둥절했다. '기상레이더센터'라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기상레이더 장비를 운영하는 업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이더를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자가 필요하며, 그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행정이 튼튼해야 레이더가 제대로 운영되어 정확한 날씨 예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상민
레이더기획팀 실무수습

두근두근 백령도 출장

내가 레이더기획팀에 들어와 첫 번째로 겪은 큰 업무는 '재물 조사'였다. 재물 조사란, 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의 수량, 상태, 이동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의 처분을 결정하고 새로운 수급을 정하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기상레이더센터의 물품은 서울 본청에 있는 물품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물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센터 직원들은 전국으로 출장을 다녀야 했다.



그리하여 실무수습 중인 나 또한 백령도 기상레이더관측소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기상청 면접을 볼 땐 “백령도든 흑산도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렸지만, 막상 백령도를 간다고 하니 긴장이 됐다. 혹 ‘실수하지 않을까?’ ‘뱃멀미를 심하게 해 알아누우면 어찌지?’ ‘높은 파도 때문에 백령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날씨는 맑았고, 멀미약은 효과적이었다. 업무 처리 또한, 함께 가신 주무관님의 탁월한 능력 덕분에 나의 부족함에도 재물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출장 덕분에 나는 재물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백령도 관측소의 청원 경찰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 백령도는 바람이 강해서 태극기가 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 내구성이 강한 태극기를 구매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아마 이런 부분은 현지 출장에 가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실무수습의 반환점을 돌아

실무수습을 한 지 어느덧 두 달 남짓. 지난 두 달간 여러 업무를 지원하면서 실수하지 않은 날을 찾기 힘들 정도로 ‘내가 없는 게 오히려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주무관님들은 원래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라며 계속해서 업무를 맡겨주셨다. 그런 신뢰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실무수습은 기상직 공직자로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실수투성이긴 했지만, 언젠가 이 첫걸음을 도움닫기 삼아 날아오르고 싶다. 그리고 훗날 지금 이 시기를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는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설렘 가득한 기상청

동촌유원지는 흔들다리를 짓곳게 건너던 나의 옛 추억의 장소이다. 대구 토박이인 나에게 그곳은 봄이 되면 김밥을 만들어 소풍 가는 곳, 오리배 타는 곳, 백숙과 부침전이 유명한 가게가 늘어진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다시 만난 동촌유원지

지금의 동촌유원지는 나의 옛 기억의 풍경과 다르게 현대식 건물과 최신 음식점,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동촌유원지가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이유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보다, 이곳이 나의 임무를 다할 직장으로써 첫걸음을 내딛게 됐기 때문이다.

인생 2회전 시작!

나의 첫 직장은 사기업이었다. 기업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역할을 다하였다. 하지만 고향인 대구와 떨어진 먼 지역이었고, 결혼과 육아로 지쳐가는 나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십여 년의 경력을 쌓은 뒤, 선택한 두 번째로 목표한 직업은 공무원이었다. 느지막이 시작한 수험 공부는 처음 각오했던 것보다 더욱 많은 고민과 시련을 나에게 안겨주었다. 아무런 기약이 없었던 새로운 직업에 대한 도전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로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다행히도 나는 목표하던 두 번째 직장에 안착하게 되었다. 시험의 합격과 더불어 시작한 김천시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생활은 약간의 적응시간이 필요했지만 금세 몸에 익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대구와 김천을 매일 오가야 했던 거리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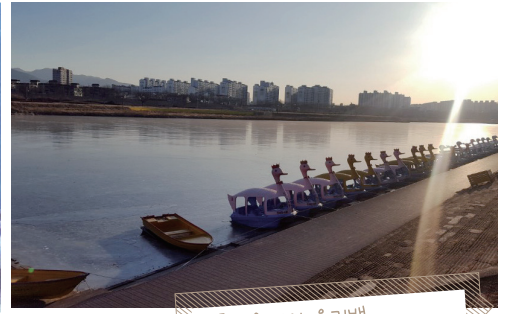
진호성
대구기상지청



동춘유원지 자전거 산책



사랑하는 우리 가족



동춘유원지의 오리배

설렘 가득한 기상청에서의 날들

그러던 중, 나는 반가운 기회를 접하고 그 행운을 잡아챘다. 인사교류를 통해, 지금 이곳 대구기상지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하루 3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 했던 길고 긴 출퇴근 시간과 안녕할 수 있게 된 외적 환경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8년 2월부터 기상청 업무를 시작한 뒤, 이게 겨우 한 달 반 남짓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이 짧은 기간에도 많은 감사함과 만족감을 느낀다. 매일 아침 만나는 가족 같은 직장 동료들과 웃는 얼굴로 소담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눌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기상청에서의 생활은, 사기업을 다니면서 느꼈던 불안감을 떨쳐줌과 동시에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안겨준다.

다만 다른 부처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기상청만의 특징을 더 꼽아본다면, 그날의 날씨에 따라 업무의 긴장도나 긴박감이 다르다는 게 아닐까 한다. 사무실 분위기도 날씨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사무실도 웬지 평소보다 더 경직되고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만난 기상청 동료들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순박하다. 지금의 동료들을 보면 나 또한 기상청에 새 발걸음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니 말이다.

워라벨 인생을 위하여

직장 동료들과 나는 '정' 외에도 이제 나는 흔히 사회가 중요시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기나긴 출퇴근 시간과 그로 인해 피곤함에 축 늘어진 과거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금껏 잊고 있던 국가관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불어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한 취미 활동에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더 없는 축복이 아닐까 한다. 나지막이 마주하게 된 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 나는 지금 여기 대구기상지청에서 다양한 경험과 마주하며 추억을 쌓게 될, 나의 동춘유원지 생활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여행에 미치다

#알립세부

기상청에 입사한 후 다녀온 첫 해외여행은 2016년의 도쿄였다. 그리고 벌써 네 번째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동안 매번 관광지로만 자유여행을 다녀서, 이번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편히 먹고, 놀고, 쉬다 올 마음으로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 '세부(CEBU)'로 떠났다. 결과적으로는 관광지보다 더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만큼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된 나의 세부 여행기!



이나혜
광주지방기상청

세부, 누구냐 너

필리핀 비사얀 제도에 있는 세부는 건기(6월~11월)와 우기(12월~5월)로 나뉘는 필리핀의 제3 도시로, '세부 시티'라고도 부른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 '세부'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필리핀 세부 위험'이 제일 먼저 눈에 띄 정도로 치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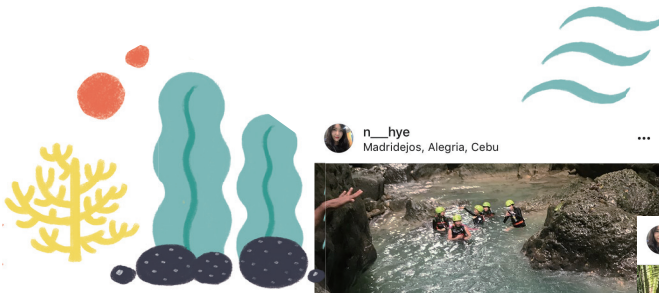
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걱정을 많이 했던 탓일까? 치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리를 활보하기에도 많이 위험하지 않았다. 물론 처음에는 신호등 없는 도로(큰 도로에는 있음)와 여기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 수많은 오토바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난 후에는 현지인들처럼 신호 없는 도로를 자연스럽게 건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스킬 UP!)

매력 뽐뽐! 스쿠버다이빙과 캐녀닝

세부에는 여러 명소가 많지만, 친구들과 나는 '먹고 놀자'라는 우리의 자유여행 테마에 맞게 '수상 액티비티'와 '호핑 투어'를 예약했다.

세부의 '호핑 투어'는 이곳의 아름다운 섬들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스노클링을 하는 코스다. 우리는 여기에 '스쿠버다이빙'을 추가해서 둘째 날 일정을 진행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과 친하지 않아 선택한 스쿠버다이빙은, 일정 교육만 잘 이수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레포츠이다. 수영을 못해도 가능해 물에 대한 공포심도 떨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막탄' 섬 옆의 '올랑고' 섬에서 가벼운 스노클링을 시작했다. 안전 교육을 마친 후에는 한국인 강사와 두 명의 현지인과 함께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지상에서와 달리, 입으로만 호흡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됐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물속은 너무 편안하고 조용하고 또 신비로웠다.



처음 보는 열대어와 산호초를 구경하며 중간에 귀가 멍멍해지지 않도록 이퀄라이징도 틈틈이 해주었다. 그렇게 가다보니 어느새 수심 18m! 처음 경험해보는 스쿠버다이빙이 너무 매력적이라, 한국인 강사가 얘기한 '물뽕(다이버들이 몇 달을 못 참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에 격하게 공감이 됐다.

셋째 날 일정이었던 '캐너닝'은, 세부에 있는 '가와산' 협곡을 따라 트레킹하다 헬멧을 쓰고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아주 아주 액티브한 프로그램이다. 현지의 캐너닝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여 1m부터 3m, 15m까지 단계적으로 다이빙을 하다보면 가슴 속 스트레스까지 싹 풀리는 아찔한 프로그램! 하루 종일 산속을 걷고 뛰어내리는 것이라 체력 소모가 많긴 하지만,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내가 또 언제 다이빙을 해볼까 싶다.

#알럽세부

이 외에도 세부는 물가가 저렴해 쇼핑과 마사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디를 가든 그림 같은 배경이 반겨주는 곳이다. 청량하게 맑은 하늘과 탁 트인 푸른 바다 그리고 친절함 현지인들까지! 그래서 세부는 한국인이 자주 가는 동남아 여행지가 아닐까 한다. 나도 언젠가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을 하러 세부에 다시 갈 것을 기약하면서! 마지막으로 태그를 남겨본다. #알럽세부

봄의 불청객 황사, 올바른 대처법 알기!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도, 가까운 편의점에 가도 각종 마스크를 찾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우리 삶에 마스크의 비중이 커진 걸까요? 바로 황사 때문입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 오늘은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봄의 불청객 황사,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황사는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고원지대의 작은 모래먼지가 강한 바람에 의해 하늘로 날아가거나 상층바람을 타고 멀리 수송돼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시아 먼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로 봄에 발생하지만 겨울철 우리나라 부근에서 눈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 사이의 건조 지대와 고비 사막 등에서 발생하는데, 겨울 내 얼어있던 흙이 봄철 녹아 잘게 부서져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황사,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건조한 환절기에 황사가 잦아지는데, 이는 심한 감기나 후두염, 천식 등의 질환을 야기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코와 기관지 점막이 말라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이 약해져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식 환자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공기 중에 흩날리는 황사와 꽃가루 등으로 가볍게는 마른기침이 계속되거나 가슴 답답함, 불쾌한 흉부 압박감 정도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더해질 경우 심한 기도 경련으로 기도가 막히며 천식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안구도 황사에 취약합니다. 자극성 결막염이나 알레르기성 결막염, 건성안 등 각종 눈병의 원인이 됩니다. 황사 속의 철과 규소, 구리, 납, 카드뮴 등 안구 세포 생명력을 파괴하는 중금속 물질이 눈 속에 들어가 자극 및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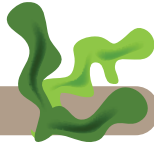
황사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일차적으로 가벼운 자극을 줍니다. 눈이 간지럽고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눈물이 자주 나면서 붉게 충혈되기도 합니다. 이차적으로 먼지 입자가 각 결막 상피층에 상처를 내면서 세균 침투를 돕고 안질환을 유발합니다. 눈이 붓거나 붉어지며 심한 경우 각막 상피 손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질병, 음식으로 대처하기!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황사를 극복하는 음식 best 4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



미역이나 다시마에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성질의 알긴산이 황사에 들어있는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흡착해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독소 배출에도 좋은 칼륨까지 함유돼 있어 외출 전, 후로 꾸준히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마늘, 양파

마늘과 양파는 화이트 푸드라고 불리며 면역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몸속 수분을 배출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특히 기관지 천식이나 피부 알레르기에 좋다고 하니 황사가 찾아오는 봄에 아주 좋겠죠?



3. 고등어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폐 질환에도 아주 좋고 아연 성분이 있어 체내에 중금속이 쌓이는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4. 물

무엇보다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관지로부터 먼지를 잡아서 기침이나 콧물 등으로 배출하는 섬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감기나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사, 어떻게 예방해야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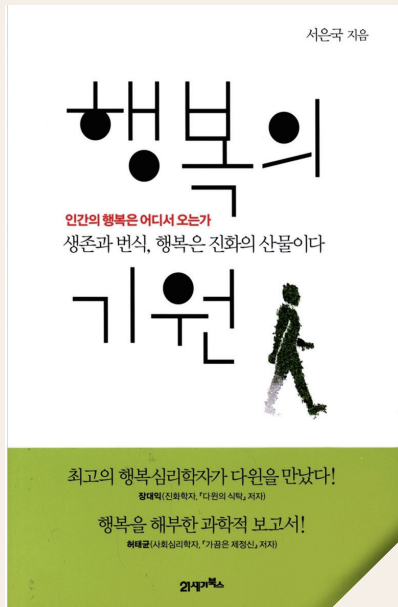
황사가 심한 날에는 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보다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집 안의 모든 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황사가 심한 날은 안경이나 선글라스로 대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렌즈는 재질이 무르기 때문에 이물질이 안구는 물론 렌즈 표면에 침착될 수 있어 심각한 안구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드렌즈는 안구 표면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눈과 렌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각막 표면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렌즈를 꼭 껴야 하는 날에는 반드시 전용 세정제로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합니다. 혹은 원데이 렌즈를 이용해 매일 새로운 렌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음식 섭취도 중요하고 마스크 착용도 아주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의 날씨가 가장 중요하겠죠.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된다면 기상청 날씨 누리 홈페이지 (<http://www.weather.go.kr>)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황사 관측 값을 확인하고 알맞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기원』

저자 서은국 | 21세기북스

인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의 기원을 따지고 싶은 것은 역사학자의 관심이자, 인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관심사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요즘 나는 매일같이 ‘오늘은 행복할 거야’ 다짐하지만 그러기엔 뭔가 부족한 기분이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해가 새로 뜬 것처럼 또다시 ‘행복해야 해’ 하고 훈련한다. 행복해지기 위해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는 일에 몰입해야 하고, 이웃과 직장 동료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러다 보면 지친다. 행복도 적금처럼 이자가 붙어 저절로 불어난다면 이렇게 걱정하지도 않을 터인데. 우리가 매일 행복을 찾고, 행복해지리라 다짐하면서도 정작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걸까?

죽음도 생각해야 한다.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을 준비하듯 죽음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삼고, 삶은 곧 죽음과 죽음 이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 하루가 시작되면 나는 다시 출발 선상에 서서 마음을 비운다. 어쩌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행복인지 모른다.

삶과 행복의 연관성

『행복의 기원』은 해답을 찾으려 했던 고민 끝에 만난 책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고 마치 굴비만 쳐다보던 관점에서, 굴비를 ‘왜’ 봐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선천성 명제가 아니라 후천성 명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각인된 생존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진화를



윤기한
대변인실



거듭하며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를 계속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미끼로 삶의 여행을 계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행복의 기원』에서는 강아지가 서핑 보드를 타는 내용이 등장한다. 하지만 강아지가 서핑보드를 타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모래사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바닷속으로 이끌기 위해, 보드 위로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 찼던 새우깡 때문이다. 새우깡 맛을 알게 된 강아지가 더 많은 새우깡을 얻어먹기 위해 노력하다 결국 어느 순간 파도 위 서핑 보드에 서 있게 됐다는 것이다. 즉, 그 강아지는 우리이고, 강아지가 맛본 새우깡이 곧 행복이며 결국 서핑 보드로 올라서게 된 것이 바로 삶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잠시 맛볼 뿐이었던 그 새우깡처럼 꿀 같은 행복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행복을 또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은 강아지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던져진 행복을 계속 갈구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행복을 자주 삶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것이 어쩌서 주머니 속 동전처럼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왜 또 다시 필요해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행복은, 크고 드물게 오기보다 여러 번 자주 와야 하는 게 아닐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실망보다는 삶을 위해 서라면 행복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당할 것 같다.

다시 삶, 사람, 그리고 행복으로…….

‘삶’은 사람의 줄임말이라는 신영복 선생의 말도 있듯이,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책에서는 그 관계가 줄다리기처럼 적당히 밀고 당겨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관계 속에 너무 깊이 빠지거나 개인의 내면으로 너무 들어가 승부를 짓게 되기보다는 관계를 밀고 당기며 사는 삶이 더 낫다는 것이다.

『행복의 기원』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며,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책과도 상반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고전역학을 배척하지 않고 포함하듯, 행복의 기원은 행복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읽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퇴근길에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못했다. ■



엄마랑 나랑 산전수전 마카오 깨기!

2018년 새해 목표였던 엄마와의 여행! 가장 고민된 것이 여행지 선정이었는데,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마카오를 여행하기로 했다.



김지애
제주지방기상청

여행 준비

보통 홍콩&마카오를 엮어서 여행을 많이 가지만, 엄마와 나는 복잡한 홍콩보다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마카오만 가기로 했다. 마카오는 이틀이면 충분히 돌 수 있기에, 항공권 가격을 고려하여 2박 4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나는 해외여행을 항상 친구와 다녀왔던 터라, 그간 친구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함께 알아 보았던 해외여행 준비를 혼자 하려니 조금 버거웠다. 하지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시간이 나는 대로 좋은 숙소와 좋은 식당을 알아보며 엄마가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일정도 여유 있게 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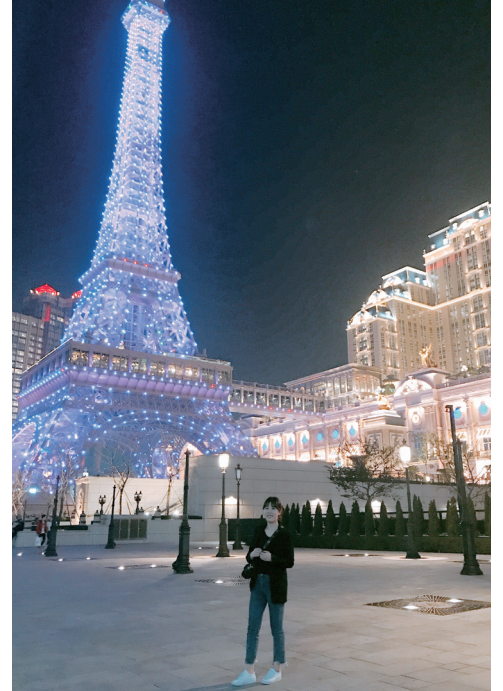
홍콩 공항 체류

기다리던 여행 첫날! 공항에 도착한 후 수속을 마치고 나니 엄마와 단둘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 면세점에서는 '효도도 하는 김에 하자'는 생각으로 면세점에서는 엄마에게 립스틱을 선물해드렸다. 비행기 탑승까지 무사히 완료한 후, 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기내식을 맛있게 먹고 잠이 들었다.

3시간 후, 마카오 공항의 시정이 안 좋은 관계로 홍콩 공항에 임시 착륙한다는 기내방송이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우리는 새벽 1시쯤 홍콩 공항에 도착했지만, 기내방송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다시 흘러나왔다. 마카오 공항 시정이 좋아져 다시 갈 수 있다는 방송이었다. 기쁨도 잠시, 결국 비행기는 뜨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기장을 포함한 크루들의 하루 근무 시간이 초과하여 비행기를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좁고 답답한 비행기 안에 탄 120여 명의 승객은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같이 대기하고 있던 티웨이 항공은 이미 마카오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 더 화가 났다. 결국, 승객 모두는 오전 11시 페리를 통해 마카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진짜 여행 시작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 첫날 숙박비는 거의 날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체크인 후 곧바로 마카오 반도로 향했다. 마카오는 호텔마다 셔틀이 잘 되어있어 여행 기간 내내 셔틀을 통해 이동했다. 10분 후 도착한 마카오 반도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기내식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엄마와 나는 밥부터 챙겨 먹었다. 완탕면과 볶음밥, 칭다오 맥주 한 잔은 그간의 피로를 잊어버리게 해주었다. 밥을 먹은 후에는 세나도 광장, 성도미니크 성당, 성바울 성당 유적, 육포거리를 관광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바로, 동양 속 유럽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성바울 성당 유적이었다. 여행에서 인증샷은 필수라, 사진을 거의 100장 넘게 찍은 것 같다. 일정을 마친 후, 오후 5시쯤 호텔에 도착하자 엄마와 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뺏어버렸다. 눈을 떴을 땐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일어나자마자 전날 육포거리에서 산 에그타르트를 흡입하고 체크아웃을 했다. 우리는 이날의 첫 번째 일정인 타이파 빌리지로 향했다. 타이파 빌리지 또한 유럽 분위기가 풍기는 파스텔 톤 건물과 아기자기 골목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었다.

다음 일정은 호텔 투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베네시안 호텔, 마카오의 에펠탑이 있는 파리지앵 호텔, 분수 쇼를 볼 수 있는 윈팰리스 호텔까지. 이들 호텔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매우 화려했다. 눈요깃거리가 많아 호텔 투어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갔다. 엄마와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마카오 공항으로 향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제시간에 출발하여 안전하게 도착했다.

에필로그

늘 보호자였던 엄마가 이제는 내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녀처럼 좋아하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시간을 더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더 스카이스캐너 어플을 켜본다. 엄마, 이제 더치페이 하자? 사랑해

봄의 걸음걸이

우리는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 조금 걷기로 했다. 이미 싹을 틔우고 있는 벚나무 이야기와 점점 가벼워지는 옷차림, 망쳐버린 중간고사 따위를 이야기했다. 그때 한 이야기들은 별 의미도 맥락도 없었다.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별로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딱히 없었다. 그 시절, 당신의 호기심은 나였고 나의 미지는 당신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뿐이었다. 언제까지가 봄인지보다 오늘은 몇 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하는지 궁금했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보다 향수를 어디에 뿌렸는지 알고 싶었다.



이옥수
독립잡지 트럼폴린 편집장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희 집으로 가는 막차가 몇 시였는지, 향수를 귀 뒤에 뿌렸는지 치맛자락에 뿌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은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거나 어딘가에 기록하는 일이 불필요했다. 전부를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정작 선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관계였는지도 모른다.

너의 걸음은 항상 조금 빨랐다. 사실 상대적으로 내가 빠르다고 느꼈을 뿐, 너는 그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에겐 평범한 걸음일 테니. 나는 너의 곁에서 나란히 걷기 위해서 조금 빨리 걷는 방법을 택했다. 너에게 조금 천천히 걸어달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그 말을 한 아주 짧은 시간만 너의 걸음이 내게 머물렀다. 그리고 평소처럼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벚나무 이야기와 중간고사 이야기 사이에 한 갈피를 끼우듯 가볍게.

“조금 천천히 걸자. 내 속도에 좀 맞춰줘.”

그날이 평소 같았다면 너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다.

“내가 또 빨리 걸었구나. 미안해.”

조금 장난치고 싶은 날이었다면

“달려가고 싶은데 참느라 그랬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업어줄까?”라며 큰 등을 내 앞에 내밀었을지도.

하지만 너는 말했다.

“너를 만나면 일부러 느리게 걸으려고 해. 네가 빠르다고 느끼는 이 속도도 내가 일부러 느리게 걸으려고 하는 속도야. 그런데 오히려 너는 계속 나에게 맞춰준다고 말하지. 나는 너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너는 내가 나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만 해. 있잖아, 나는 너처럼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 널 좋아하지만 널 계속 좋아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말인 것 같아.”

알까 눈물이 났다. 네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어쩐지 화가 났다. 연애를 하면서 누가 더 노력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누가 더 많이 배려하는지 구분 짓고 싶지 않았지만 너는 우리 관계의 민낯을 고스란히 밖으로 나오게 했다.



“정말 유치하다. 너.”

할 줄 아는 욕이라도 몇 개 있었으면 너에게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 말을 그렇게 내뱉고 너의 보폭보다 크게, 너의 걸음걸이보다 빠르게 왔던 길을 되돌아 걸어갔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도 나를 따라오는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는 벚꽃 개화 시기를 알리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작년보다는 4일, 평년보다는 8일 이르다고 했다. 나는 뉴스의 볼륨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속도도 달라지는데 사람과 사람이 걸음걸이를 늘 동일하게 맞추는 일이 쉬울 리 없었다. 그때는 그저 누구라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나이였을 뿐이다. 누구라도 끌어안고 싶어 했던 봄이었을 뿐이다.

그날의 속도로 다시 봄이 도착했다. 평년보다 일찍 핀 올해의 벚꽃이 오래 머물지 못한 그때의 사랑처럼 또 성급하게 가버릴 것 같은 생각에 커튼을 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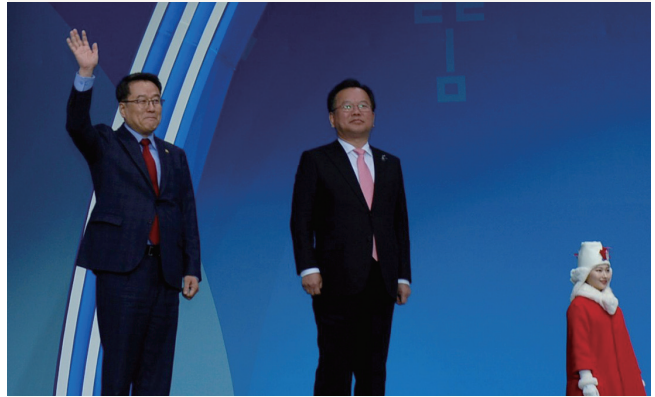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을 먹읍시다' 촬영 (3월 13일)**
기상청 직원들이 현대인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홍보하기 위해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에 깜짝 출연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 **평창 동계패럴림픽 메달 수여식 참석 (3월 17일)**
남재철 기상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기상지원단 공로를 인정받아, '바이애슬론 남자 15km 시각장애' 부문 메달 수여식에 참석해 마스크트 인형(반다비)을 수상자에게 전달했다.



• **제35회 기상기후사진전 개최 (3월 20일~25일)**
'제35회 기상기후사진전'을 한국잡월드 그랜드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햇살과 바람의 기억, 날씨를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 수상작 44점(일반공모 30점, 특별공모 14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 (3월 23일)**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에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이상돈 국회의원, 전임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Photo News



기상청, 국립민속박물관과 문화융복합 체험 프로그램 운영 (4월 2일~17일)

기상청은 4월 2일부터 17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융복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날씨와 관련된 선조들의 지혜와 우수성을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실' 시행 (4월 2일)

수도권기상청은 기상기후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위해 동두천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상기후교실'을 국가위성센터에서 시행했다.



'세계 물의 날 기념' 기후변화 적응 포럼 개최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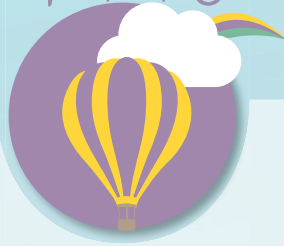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 및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함께 '동해안 권역 가뭄대책과 지속가능한 물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롯데리조트 오크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초청 (4월 4일)

남재철 기상청장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활약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조병석(좌), 이주승(우))을 기상청으로 초청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구독 소감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뽑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5월호의 단어는 <소풍>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설렘>

박소간, 서울
멀리 보이는 산을 정상까지 한 걸음씩 걷는 재미
김은정, 대전
늘 똑같은 일상에 두근거림이 시작되는 것
최홍렬, 울산
농부가 씨앗을 뿌린 작물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기대

이갑수, 전남
첫사랑의 기억처럼 기분 좋은 일을 예감하는 순간, 찾아오는 떨림과 흥분
서기원, 전주
군대 시절, 애인이 면회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행복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 기상청에서 개최한 제35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① 구름, 바람, 햇살과 그 찬란함! ② 햇살과 바람의 기억, 날씨를 보다
③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 ④ 사진, 날씨를 말하다
- 동남아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필리핀의 제3 도시'라고 일컫는 휴양 도시는?
① 발리 ② 푸켓 ③ 세부 ④ 보라카이

- ① 지진 안전역량 강화 교육
- ④ 숨마 쿨 라우데

- 최정욱(서울) 장미선(수원)
조건희(부천) 장우익(강원)
이지지(서울)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18. 3. 12.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허택산
		예보국	총괄예보관	기술서기관(예보관)	이현수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술서기관	정관영
파견 (연장)	'18. 4. 1. ~ 6. 15.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기상사무관	임장호

시끌벅적 하늘사랑

최정욱 서울

작년 11월 15일, 포항에 지진이 나 경상권까지 여파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며칠 후 2박 3일 부산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저는 깜짝 놀라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취소했지요. 부산 여행을 갔다가 지진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높은 곳에 물건을 잘 올려놓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닌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니, 지진에 대한 기본 지식과 대처 요령을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지진에 관한 지식과 체험을 어려서부터 익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산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 안전역량 강화교육’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갑수 전남

‘면역력 떨어진 봄철, 자가면역질환 주의해야’ 기사를 읽으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질병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면, 날씨와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줄어든 활동량으로 인해 봄이면 입맛이 떨어지고 대장포진과 감기, 관절통으로 적잖이 고생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하늘사랑>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건강 이상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날씨와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은정 대전

저도 3월호 잘 읽었어요! 『끝난 사람』이란 기사를 읽고 책이 궁금해서 당장 주문했습니다. 제목도 강렬하고 60대 남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설정 또한 독특하네요. 그동안은 책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마음먹어도 막상 읽으려고 하면 어떤 책이 좋을지 몰라 막막했는데, 이번에 좋은 책을 알게 되어 책 읽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정이안 작가님의 추천에 감사드려요. 또, 이번 3월호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이 추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101일간의 릴레이에 기상청의 최은경 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상상이 됩니다. <하늘사랑>을 읽으면 기상청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기대할게요.

조건희 부천

기상청 예보분석팀의 박민 씨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15년 전 새내기 수습기간이 있었던 터라, 박민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앞으로 기상인으로서 거듭나는데 평생 잊지 못할 의미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나라 날씨를 예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길! 앞으로 들어올 새내기 후배들에게 분명 인정받는 멋진 선배가 될 겁니다. 제가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훗날 좋은 추억으로 남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도 파이팅!



사진 : 안진석, <계절의 아침빛>, 2014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 글 : 조아라

이끼들의 도서관

어쩌면 그곳은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늑늑한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

단단한 페이지마다
빼곡이 적힌 이끼들의 활자가
툑툑, 튀어나와

이제 막 첫숨을 토크운 햇살아래
초록빛 잉크처럼 퍼진다

진한 나무향 베어나오는
행간마다
몰래 숨어들어온 바람이
숨을 꿀깍, 참으며
읽는 금서(禁書)와

부드럽게 손으로 훑으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라지는 밀서(密書)가 가득한

어쩌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 도서관

FTA 활용(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떻게 해결할까?



01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이 어려움 없이 FTA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 및 전국 17개 지역 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 내 FTA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FTA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연락처

서울	(국번없이)1380 (FTA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고양)	031-995-7484	이지인 팀장
			경기(남부,수원)	031-8064-1397	오재만 팀장
인천	032-810-2824	이지여 부장	대구	053-222-3105	우윤동 과장
대전	042-480-3044	천희영 대리	울산	052-287-3061	강현우 과장
광주	062-350-5862	이광호 과장	강원(춘천)	033-257-4071	정희연 과장
부산	051-990-7015	박재환 팀장	충북(청주)	043-229-2726	김옥미 사원
충남(아산)	041-539-4531	조광옥 팀장	전북(전주)	063-711-2045	김보라 주임
전남(무안)	061-288-3871~2	김성수 사원	경북(구미)	054-454-6601(내선134)	김동환 대리
			경북동(포항)	054-274-2233	김정민 과장
경남(창원)	055-210-3043	서제완 대리	제주	064-757-2164	박용재 주임

02 전화 상담도 가능한가요?

상담이 필요할 땐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380을 누르고 FTA 활용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운영시간 : 월~금(09:00~19:00)
- 상담분야 : 품목분류/관세율, 원산지증명서 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원산지결정기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사후검증, FTA교육/지원사업 등



03 직접 와서 무료로 컨설팅도 해주나요?

1380콜센터 또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전화 걸어 「찾아가는 FTA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관세사 등 FTA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란?

1380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 및 컨설팅 제공(1~2일, 무료)

▶ 문의 : 1380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센터(01표 참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시면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fta1380.or.kr>)를 통해 「OK FTA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FTA 원산지관리, 인증, 지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10일간(필수+선택)의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018.1.25 ~ 5.15



#불과몇시간전 #추억의장소
#캠핑 #글램핑 #산불조심



산불예방은 내일을 위한 모두의 약속입니다!

산불신고 :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



산림청